

뽀로로 군기 잡는 똑딱이... '2030 감성' 잡았다

EBS '똑딱이 특집' '이육대' 공개
2030세대 향수 자극...SNS 인기
달빛천사 OST 편딩 모금도 화제

추억을 자극하는 과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EBS '딩동댕 유치원'의 대표 캐릭터 똑딱이와 2004년 방송한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1994년 '딩동댕 유치원'에 처음 등장한 똑딱이는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현재 각종 SNS와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똑딱이의 과거 방송 영상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고, 똑딱이에 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EBS는 급기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똑딱이 특집'을 만들어 공개했다.

과거 TV에 한정됐던 무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인터넷까지 확장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이 열풍의 시작은 당시 똑딱이를 보고 자란 20·30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EBS 인기 캐릭터들이 체육대회를 펼치는 'EBS 아이돌 육상대회'(이육대)가 힘을 보탤다. 똑딱이는 방송에서 "최고참선배"임을 강조하며 후배 캐릭터들의 '군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애니메이션 '달빛천사'가 15년 만에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달빛천사'는 방송 당시 초등학생들



EBS가 방송한 프로그램 속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한 'EBS 아이돌 육상대회'의 한 장면. 뽀로로 등이 벌인 경쟁에서 '딩동댕 유치원'의 주인공 똑딱이(가운데)가 MVP를 차지했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제곡도 유행가처럼 크게 히트했지만, 정작 음원이나 앨범 등 OST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방송 15주년이 되면서 당시 주인공 캐릭터 데빙과 삽입곡을 부른 성우 이용신이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뉴 퓨처" 등 삽입곡들이 그간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아 팬들의 아쉬움이 컸다"며 추억을 소환했다. 이용신은 OST 발매를

위해 팬딩사이트 텀블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당시 '달빛천사'를 보고 자란 20·30세대들이 동참했다.

처음엔 일본 원곡의 커버 라이선스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3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9일 오후 현재 20억4700여 만 원을 훌쩍 넘겼다. 후원자 수는 무려 5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용신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의 인기는 최근 과거 TV 프로그램 다시보기 등 '추억 콘텐츠'가 조명 받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EBS 이슬예나 PD는 "이육대"를 연출하면서 어린이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며 과거 콘텐츠들의 저력을 강조했다. 이용신 또한 "같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송혜교, 日 우토로에 한글 안내서 기증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한글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을 상징하는 장소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한글 안내서 1만 부를 추가 기증했다. 송혜교가 전 세계 주요 유적지를 대상으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진행 중인 '한글 안내서 기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송혜교와 서경덕 교수는 그동안 한글 안내서를 기부해온 17곳에 추가 기증을 진행하는 '리필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송혜교는 올해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열사 기념관에 한글 간판을 기증하기도 했다.

27일 신해철 5주기 추모 콘서트

2014년 10월27일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5주기를 맞아 동료 가수들이 모여 추모 콘서트 '시월'을 연다. 2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노들섬리브하우스에서 열리는 추모 콘서트에는 생전 신해철과 인연을 맺은 밴드 넥스트의 김영석, 이현섭을 비롯해 부활의 박완규, 플라워의 고유진, 크래쉬의 안홍찬 뮤지션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월'이라는 추모 팀을 만들어 이번 공연을 추진해왔고, 무대에 올라 신해철의 노래를 부른다. 한편 신해철의 유족은 데뷔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기념앨범 '고스트 터치'를 발매했다.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22개국 판매



공효진·김래원 주연의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가 22개국에 판매됐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는 이례적인 수출 규모다. 배급사 NEW에 따르면 '가장 보통의 연애'는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필리핀, 홍콩 등에 팔렸다.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는 콘텐츠판다는 9일 "로맨스 장르의 한국영화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된 성과는 드물다"며 "로맨스와 오피스 라이프를 바탕으로 한 웃음 코드가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30대 남녀의 솔직한 현실 연애를 담은 영화는 9일에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백대표 vs 백주부 vs 백쉐프

(골목식당)

(유튜브)

(맛남의 광장)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예능 겹치기 출연의 상황에 놓였다. '음식 예능'에 뛰어난 감각을 보이며 방송가를 중흥무진하고 있는 백종원이 비슷한 소재와 포맷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3편이나 선보이게 됐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는가하면 겹치기 출연으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중인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스푸파2)에 출연 중이고, 추측 연휴 파일럿으로 방송된 SBS '맛남의 광장'이 최근 정규 편성됐다.

● '골목식당' 노하우, '스푸파2' 이야기

12월 초 방송하는 '맛남의 광장'은 11월 초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파일럿에서 시도한 기획 그대로 백종원이 각 지역 휴게소와 철도역을 찾아 해당 지역 특산물을

백종원 '맛남의 광장' 자신과 싸움
이관원 PD "기획 달라 걱정 안 해"



백종원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내용이다. 제작진은 판매 장소와 재료 선정을 위한 답사에 한창이다.

'맛남의 광장'까지 정규 편성되면서 백종원의 이름은 건 프로그램만 3편에 이르지만 각각의 콘셉트가 다른 만큼 제작진은 '비교'보다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백종원은 2018년 1월부터 SBS '골목식당'을 진행하면서 골목상권 음식점 사장님들을 만나 각종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골목식당'에서 30년 경력의 외식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9월22일 시작한 '스푸파2'에서는 요리연구가로서의 관점을 다양하게 풀어낸다. 미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고 그와 관련한 각종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맛남의 광장'에서는 오랜만에 직접 요리로 나선다.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방식은 백종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요리비책'과 비슷하지만 공격성 강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관원 PD는 "요리비책"은 가정식 요리를 주로 다루지만 '맛남의 광장'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법 소개와 소비 권장을 통한 공익적인 면까지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고민시

당찬 신인배우 고민시 베테랑에 기죽지 않네

'시크릿 부티크' 김선아·장미희와 대립

인방극장에 나타난 새 얼굴 고민시(24)가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SBS 수목드라마 '시크릿 부티크'가 활약의 무대다. 베테랑 연기자 김선아, 장미희와 대적하는 역할을 맡은 신인이지만 선배 배우들에 결코 밀리지 않는 실력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고민시는 1년여 만에 급성장한 연기자다. 2017년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로 데뷔하고 이듬해 영화 '마녀'에서 주인공 김다미의 친구 역으로 주목받은 이후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좋아하면 울리는' '잊혀진 계절' 등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시크릿 부티크'가 고민시의 첫 주연 드라마이지만 여는 신인 연기자들과 달리 오디션은 거치지 않았다. 연출자 박형기 PD가 평소 눈여겨 본 그에게 출연을 제안해 성사됐다. 1년 간 고민시가 보인 행보가 제작진에게 믿음을 준 결과다.

'시크릿 부티크'는 재벌가를 중심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여성들의 이야기다. 극중 고민시는 권력 이동에 킁 쥐고 있는 인물로, 김선아와 장미희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경험 많은 노련한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에서 긴장의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신인의 패기도 엿보인다.

고민시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히트 드라마를 연출한 이은복 PD의 신작인 '스위트홈' 주인공으로 발탁된 그는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12월 결혼식 앞둔 수현, 신혼 즐길 틈 없겠네

방영 예정 '키마이라' 작업 한창
내년초 유럽서 '동물사전3' 촬영

배우 수현(34)이 결혼 이후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에 나선다. 12월14일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한국 대표인 차민근(37) 씨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는 수현은 예식 직후 유럽으로 건너가 할리우드 영화 작업을 시작한다.

수현은 내년 초 영국 등 유럽에서 '해리포터'의 변의 시리즈인 '신비한 동물사전3'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합류해 활약한 수현은 이번 3편에서도 주도로, 에즈라 미라 등과 호흡을 맞춰 이야

기를 이끈다.

수현은 '신비한 동물사전3' 촬영 일정 등을 고려해 차민근 대표와 결혼 계획을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이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진지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는 사실(스포츠동아 8월 22일자)이 공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현은 차 대표로부터 서프라이즈 프러포즈를 받으면서 결혼 일정을 12월14일로 확정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현은 9일 SNS에 프러포즈 당시 차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행복하다"라고도 밝혔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9일 "당초 해외에서 양가 가족만 모여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릴 계획도 염두에 뒀지만 가족과 친지, 지인들의 축복 속에 예식을 치르기로 마음을 바



수현

꾸고 주변의 조언 속에 신라호텔로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차민근 대표는 미국 공유오피스 서비스 기업 위워크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위워크는 미국과 유럽에도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만큼 결혼 뒤 수현과 차 대표가 해외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수현은 결혼을 앞두고 내년 초 방송 예정인 드라마 '키마이라' 촬영에 한창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